

- 타이틀 : 도모다치 타네(친구 씨앗)
- 저 자 : 모리사와 아키오
- 그 림 : 카토우 미키
- 페이지 : 32
- 장 르 : 아동, 동화
- 발행일 : 2008년 12월 5일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기념 마스코트 캐릭터 "타네마루" 를 모티브로 한 그림책!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소중한 '친구'를 키워드로 누가 읽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

<내용 소개 >

"할아버지, 저에게 친구를 선물해 주세요!" 타네마루가 부탁을 하면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다면 네 가슴 속에 있는 작은 친구 씨앗을 키워 보렴." "친구 ... 씨앗이라고요?" 부드럽고 깊은 여운에 감동! 어린이가 읽으면 방글방글, 어른이 읽으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이 작은 이야기에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중요한 힌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자 소개 >

모리사와 아키오

작가. 1969년 치바현 출생. 논픽션 《ラスト 사무라이 한쪽 눈의 챔피언 다케다 코조》로 제 17 회 미즈노 스포츠 라이터 우수상을 수상했다. 소설 《바다를 품은 유리구슬》은 한국에서도 인기를 모았다. 재미있는 에세이 《푸른 하늘 맥주》 등 저서 다수. 근저에는 일본의 해안선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 기행 에세이 《물가의 나그네》가 있다.

가토 미키(그림)

화가. 사이타마현 출생. 여자 미술 대학 회화과 서양화 전공 졸업 후, 문구 제작사 제작실 디자이너로 근무. 1999년부터, 프리랜서 일러스트 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책으로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독자 리뷰>

가볍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읽어 보면, 이야기는 매우 간단한데, 마음의 만남이 매우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외로울 때 열어보면 푸근함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의 마지막에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만, 대답은 간단한 듯하며, "어?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확인하고 싶어져요. 그 대답을 찾기 위해, 몇 번이나 주인공 타네마루의 기분을 되짚어 볼 때면, "아, 이렇게 아이와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에서 소중히 하는 마음을 상냥한 아이의 마음일 때 느끼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이가 친절하고 씩씩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